

카자흐스탄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3. 5.

I. 일반개황	1
II. 경제동향	2
III. 정치·사회동향	9
IV. 국제신인도	13
V. 종합의견	16

I. 일반개황

면적	27.3만 km ²	G D P	1,964억 달러 (2012년)
인구	1,670만 명 (2012년)	1 인 당 GDP	11,762달러 (2012년)
정치체제	대통령 중심제	통화단위	Tenge
대외정책	친러시아 대서방우호관계유지	환율(달러당)	149.11 (2012년)

-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에 위치한 세계 제 9위의 영토대국으로 원유, 천연가스, 석탄 우라늄, 크롬, 금, 철광석 등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한 다민족·다종교 국가임.
- 1991년 독립이래로 나자르바예프(Nazarbayev) 대통령이 장기집권 중이며 견실한 경제성장과 사회복지 정책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음.
- 정부의 적극적인 대외개방 정책으로 원유·천연가스 부문을 중심으로 FDI 유입이 증가하였으며,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음.
- 기존의 러시아와 긴밀한 경제·안보 협력관계 외에도 중국, 서방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국제사회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노력 중임.

II. 경제동향

1. 국내경제

□ 경제위기 이후 빠른 경제회복을 시현하였으나 2012년 경제성장률 소폭 둔화

- 카자흐스탄 경제는 2000년대 이후 연평균 10% 이상의 고성장을 기록하였으나 글로벌 경제위기로 2008년과 2009년 경제성장률이 각각 3.2%, 1.2%로 크게 침체됨.
- 2010년에 유가 상승 및 국내외 경기회복에 힘입어 경제성장률 7.3%로 큰 폭의 회복세를 시현하였고, 2011년에도 고유가 지속, 원유 생산량 증가와 더불어 정부지출 확대, 실질임금 상승과 실업률 감소에 따라 7.5%의 경제성장을 지속함.
- 2012년에는 심각한 가뭄으로 농업생산량이 17.8% 감소하고, 산업생산량 증가율이 0.6%로 둔화되었으며, 원유 생산량이 감소하여 경제성장률이 5.0%로 둔화됨.

□ 소비자물가 상승압박은 다소 완화

-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로 17.2%까지 급등한 소비자물가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에 따라 2009년 7.3%, 2010년 7.1%로 둔화됨.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f
경제성장률	3.2	1.2	7.3	7.5	5.0
재정수지 / GDP	-2.1	-3.0	-2.5	-2.1	-3.0
소비자물가상승률	17.2	7.3	7.1	8.4	5.1

자료: IMF 및 EIU.

- 2011년에 국제 식료품과 원자재 가격 상승 및 내수 회복에 따라 소비자물가상승률이 8.4% 수준으로 상승함.
- 2012년에는 작황 부진으로 인한 식료품 가격이 상승하였으나 소비자물가상승률이 통화당국의 관리목표(6~8%) 이내인 5.1%를 기록하며 상승압박이 다소 완화됨.

□ 재정수지는 만성적인 적자기조이나 관리가능한 수준 형성

- 2010년에는 지속적인 재정수지 적자를 보완하기 위해 원유수입을 활용한 국부펀드(National Fund of Kazakhstan: NFRK)에서 법정한도액인 80억 달러까지 예산에 전용하고, 8월부터 석유수출세로 톤당 20달러를 부과함으로써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규모가 -2.5%로 축소됨.
- 2011년에는 유가상승으로 인한 석유수출 증가와 정부의 석유수출세 및 개인소득세 인상 조치로 인해 재정수입이 증가하여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가 -2.1%까지 축소되었음.
 - 석유수출세는 2011년 1월부터 톤 당 40달러로 인상되었으며, 개인소득세도 기존의 10%에서 10~20%로 차등부과됨.
- 2012년에는 정부의 인프라 투자와 사회보장 부문에 대한 지출 증가로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규모가 다시 3.0%까지 확대됨.

2. 경제 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원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 부문에 편중된 산업구조

- 카자흐스탄 경제는 원유, 천연가스 및 광물자원에 대한 높은 의존도로 인해 수출, FDI 및 재정수입 등이 국제 원자재 가격 동향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고 있음. 또 제조업 기반이 취약해 자본재 및 소비재 등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 BMI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의 원유 및 가스부문은 GDP의 30% 이상이며,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함.

□ 외국자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국제금융시장 여건 변화에 민감

- 카자흐스탄은 국내 자본 축적 부족으로 투자자금을 주로 해외차입과 FDI에 의존해 왔으며, 그 결과 2007년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글로벌 신용경색으로 해외차입이 곤란해짐에 따라 은행들이 만기도래 차입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음.
- 유럽 재정위기 확산, 미국 더블딥 우려 등 세계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대외충격에 민감한 카자흐스탄의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 2009년 이후 은행부문의 취약성 지속

- 2003~07년 카자흐스탄은 건설 및 부동산 부문 투자를 위한 외채가 증가 하였으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와 부동산경기의 경착륙, 탕계화 절하로 인해 은행권 부실 문제가 대두됨.
- 2009년 3월 알리안스은행(Alliance Bank)을 시작으로, BTA 은행(BTA Bank), 아스타나은행(Astana Bank), 테미르은행(Temir bank) 등 카자흐스탄의 주요 은행들이 디폴트를 선언함.
- 카자흐스탄 정부는 국부펀드인 삼룩카즈나를 통해 50억 달러의 유동성을 지원하여 2010년 10월까지 1차 채무재조정을 완료함. 2011년 12월부터는 부실자산 정리를 위한 은행 구조조정이 시작되어 주요 은행이 사실상 국유화됨.
- 구조조정 이후 카자흐스탄 정부의 주요은행에 대한 지분율은 BTA은행 97.3%, 알리안스은행 67% 및 테미르은행 79.9%로 증가함.
- 카자흐스탄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내 은행자산은 2009년 이후 증가하는 추세이나, 기업 및 개인의 대출상환연체로 인한 자산건전성 악화로 평균 NPL 비율은 30%를 상회하는 높은 수준임.

- 은행자산 증가율: -2.8%(2009) → 4.1%(2010) → 6.5%(2011) → 4.9%(2012.3분기)
- 주요 부실은행의 NPL 비율(2012년 9월말): BTA은행 86.2%, 알리안스은행 46.7%, 테미르은행 46.9% 등
- 2013년에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알리안스 은행과 테미르은행 합병 등 주요 은행간 M&A 및 매각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

나. 성장 잠재력

□ 풍부한 부존자원의 개발잠재력 및 자원 수출을 통한 자생력 보유

- 카자흐스탄은 원유, 천연가스를 비롯한 각종 광물자원(석탄, 우라늄, 크롬, 아연 등)이 매우 풍부해 에너지 분야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 카자흐스탄의 주요 유전인 Tengiz 유전 및 Karachaganak 유전을 비롯해 최대 규모인 Kashagan 유전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가 지속되는 등 에너지 부문의 성장잠재력은 지대함.
- 33억 달러가 투자된 Kashagan 유전은 2013년 6월 상업생산을 앞두고 있음. 동 유전의 원유생산량은 초기에 37만 b/d 수준이나 생산이 본격화되는 2015~16년에는 45만 b/d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 또 우라늄은 신규 광산개발로 2012년에 매장량이 20,900톤(세계 우라늄 매장량의 37%)으로 증가하였으며, 2018년까지 3만 톤 규모로 증가할 전망이다.

- 주요 광물자원 매장량 현황(2011년 말 기준, BP)

- * 원유: 300억 배럴, 세계 12위
- * 천연가스: 1.88조 입방미터, 세계 19위
- * 석탄: 336억 톤, 세계 8위
- * 크롬 세계 1위, 우라늄 세계 2위, 아연 세계 4위 등

다. 정책성과

□ 산업다변화를 위한 경제개발 및 구조개혁 추진

- 2010년 정부는 새로운 산업과 중소기업 성장을 표방하는 산업개발 5개년 정책*(Industrial-Innovative Development Programme)을 발표하였음.

* 인프라 구축 및 인력 개발에 대한 투자를 증대해 노동생산성을 향상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농업 분야 개발,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 시스템 개선 및 금융시장 안정을 우선순위에 두고 추진할 예정임.

- IMF는 2015년까지 카자흐스탄의 1인당 국민소득 수준을 15,000달러까지 향상하는 개발정책을 권고함.

- 프로그램의 취지는 바람직하나 부의 보다 균등한 분배가 전제되어야 하며, 높은 NPL 비율 등 산적한 금융 분야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응할 수 있는 건전한 거시경제 정책 시행, 경제 다각화를 증진하기 위한 구조개혁 등이 성공요인임.

- 2012년 12월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기존 카자흐스탄 2030 계획을 대체한 새로운 중장기 계획으로 카자흐스탄 2050(Kazakhstan-2050)을 발표함.

- 동 계획은 인프라, 교육, 보건 및 경제 다변화를 중점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비에너지부문의 외국인투자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허브로의 도약을 강조하고 있음.

□ 신개념의 실크로드(Silk Road) 전략으로 인프라투자 확대

- 2012년 5월 카자흐스탄 정부는 아시아, 유럽 및 중앙아시아를 잇는 경제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 철도망 및 무역루트를 개선하도록 하는 실크로드 전략을 발표하였음.

- 동 계획에 따라 2013년에만 6건의 신규 고속철도 건설 계획이 진행될 예정이며, 향후 인프라투자는 계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개방정책의 일환으로 WTO 가입 추진

- 카자흐스탄 정부는 1996년 WTO 가입을 신청한 이후 세계관세기구(WCO)의 원칙에 기초하여 관세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정 중임. 러시아의 WTO 가입안이 2012년 8월 WTO 발효됨에 따라 카자흐스탄 역시 WTO 가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3. 대외거래

□ 에너지 수출 증가에 힘입어 경상수지는 흑자기조 유지

- 2010년 경기회복으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과 국제 원자재의 수요 증가로 카자흐스탄의 상품수출액은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상품수지 증가에 힘입어 경상수지 역시 흑자폭이 확대되고 있음.
- 2011년부터 내수심리 회복으로 상품수입이 증가하였음에도 국제 금속가격 및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수출 증가폭이 이를 상회하여 경상수지 흑자는 2011년 GDP 대비 7.7%로 크게 증가함.
- 2012년에는 수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원유생산량이 1.8% 감소함에 따라 총수출이 -0.9% 축소되어 경상수지 흑자는 GDP 대비 4.8%로 소폭 감소함.

* 총수출증가율: -36.4%(2009) → 33.6%(2010) → 40.3%(2011) → 10.1%(2012)

* 총수출/GDP: 44.0%(2009) → 45.7%(2010) → 51.8%(2011) → 53.2%(2012)

□ 외환보유액은 2010년 이후 감소세

- 고유가로 석유수출을 통한 재정수입의 증가, 에너지 부문 개발 관련 FDI 유입에 힘입어 카자흐스탄의 외환보유액은 2005년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해왔음. 그러나 2010년 247억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한 카자흐스탄의 외환보유액은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FDI 유입액 감소와 계속된 은행 채무재조정으로 2011년에 247억달러, 2012년에는 216억 달러로 감소하는 추세임.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억 달러, %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f
경 상 수 지	63	-41	24	141	158
경 상 수 지 / G D P	4.7	-3.7	1.7	7.7	8.0
상 품 수 지	335	150	187	473	484
수 출	720	439	616	885	912
수 입	385	290	329	412	429
외 환 보 유 액	179	202	247	246	394
총 외 채 잔 액	1,077	1,117	1,247	1,388	1,357
총 외 채 잔 액 / G D P	79.6	100.4	87.5	75.8	72.0
D S R	25.7	46.4	30.6	24.7	21.8

자료: IMF 및 EIU.

□ 총외채규모 증가세 둔화로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율 하락세

- 외채규모는 은행 등 민간부문의 해외차입으로 2005년 434억 달러에서 2008년 1,077억 달러로 3배나 증가하였으나,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차입여건 악화로 2010년부터는 외채규모 증가세 둔화되는 추세임. 그 결과 2009년 96%에 육박했던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율은 2012년에 69%로 하락함.

* 총외채잔액: 1,111억 달러(2009) → 1,187억 달러(2010) → 1,243억 달러(2011) → 1,351억 달러(2012)

* 총외채잔액/GDP: 96.4%(2009) → 80.2%(2010) → 67.9%(2011) → 68.8%(2012)

□ 외채상환부담은 비교적 높은 편이나 2010년 이후 감소세

- 카자흐스탄의 총수출 대비 총외채잔액비율은 100%를 상회하는 높은 수준으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219%까지 급등함. 2010년 이후 총수출의 증가로 총수출 대비 총외채잔액비율은 하락세를 지속함.

* 총외채잔액/총수출: 219.4%(2009) → 175.5%(2010) → 131.0%(2011) → 129.3%(2012)

- 2006~08년 꾸준한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본지사간 대여금 및 은행의 해외 차입금 상환부담 증가로 외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평균 30%대의 높은 수준을 기록했으며 2009년 중 수출의 급감으로 DSR은 46.0%까지 급등함.
- 2010년에는 수출증가세 회복으로 DSR이 32.8% 수준으로 하락했으며 2011년에도 21.6%로 원리금 상환부담은 점진적으로 완화되는 추세임. 2012년에는 총수출 증가가 외채상환부담 증가를 상회하여 외채원리금상환비율이 소폭 증가하였으나 2009년의 절반 수준인 20% 수준임.

* DSR: 46.0%(2009) → 32.8%(2010) → 21.6%(2011) → 22.1%(2012)

Ⅲ. 정치·사회 동향

1. 정치안정

□ 현 대통령의 높은 국민지지를 바탕으로 장기집권 체제 지속

-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1991년 구소련연방으로 독립할 당시부터 현재까지 22년간 장기집권하였음. 두 차례 개헌을 통해 사실상 영구집권이 가능하며, 2011년 5월 실시된 조기대선에서도 95%의 득표율로 4선에 성공함.
- 카자흐스탄 정부는 자원수출을 통한 외화수입으로 기본식료품 및 에너지 가격을 통제하고 있으며, 경제위기 당시에 사회보장 지출을 확대하여 국민불만을 잠재웠음.
- 2012년 1월 총선 결과 여당인 Nur Otan당이 81%를 득표하여 107석 중 83석을 차지함. 의석을 획득한 나머지 2당도 모두 친정부성향이 강해서 2017년 총선까지 특별한 정치적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됨.

□ 대통령의 후계문제 대두

- 현 대통령은 73세로 고령이나, 뒤를 이을 강력할 인물이 부재하고 야당 세력이 미미한 점을 고려하면 향후 대통령의 건강 악화 등에 따라 정치적 불안정성이 발생할 요인이 상존함.

- 장기독재 체제를 유지해 온 키르기즈에서도 2010년 더딘 민주화와 경제난으로 시위가 발생하여 대통령이 사임하고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사례가 있음.

2. 사회안정 및 소요/사태

□ 2011년 발생한 소요사태는 소강상태

- 2011년 5월 서부의 석유생산지역(Zhanaozen)에서 수백 명의 에너지부문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 처우 개선 및 해고 노동자 복직을 주장하며 파업을 시작하였음. 이들의 파업이 동년 12월에 소요사태로 심화되자, 카자흐스탄 정부는 이를 강경진압하여 16명이 사망하고 37명이 체포되었음.
- 국제인권단체들은 정부의 유혈진압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사회전반으로 확산되지 않고 주요 시위가담자 중 일부가 석방되고 소요사태가 종료됨.
- 카자흐스탄 정부는 이후 서부의 에너지 생산지를 중심으로 노동자들의 파업 및 임금인상 요구시 즉각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는 회유정책을 권장하는 동시에 노동조합이 의무적으로 정부에 신고하게 하는 법안을 통해 추가적인 소요사태 발생에 대비하고 있음.

□ 실업률 하락으로 사회불안 요인 축소

- 글로벌 경제위기 여파에도 카자흐스탄은 꾸준한 경제성장을 계속하고 있어 실업률은 2006년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회불안 요인이 적은 편임.
- 실업률 추이: 7.3%(2007) → 6.6%(2009) → 5.8%(2010) → 5.4%(2011) → 5.3%(2012)

3. 국제관계

□ 중국과 에너지 부문에 대한 협력 강화

-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중국은 중앙아시아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카자흐스탄은 풍부한 에너지자원을 보유한 중앙아시아의 경제 중심국으로서의 위상이 강화되고 있음.
- 2012년 6월 베이징에서 개최된 상하이협력기구(SCO) 회담에서 중국은 카자흐스탄을 비롯하여 러시아, 키르기즈,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음.
 - 동 회의에서 중국수출입은행은 카자흐스탄의 3개의 석유정제시설 업그레이드를 위해 11억 달러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음. 이 중 2개 기업은 중국 국영석유기업(CNPC)이 합작투자한 상태임.

□ 러시아와의 관세동맹이 발효되었으나 유라시아연합 창설에는 난항

- 카자흐스탄은 과거 구소련 연방의 일부로 현재까지 경제·안보 측면에서 러시아와 긴밀한 유대관계를 맺고 있으나, 다원주의 외교정책으로 카자흐스탄 내 중국과 서방의 영향력이 높아지면서 러시아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
- 2010년 카자흐스탄은 러시아, 벨로루시와 함께 역내 상품, 서비스, 노동,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과 함께 공동 관세정책을 사용하는 관세동맹(CES)을 결성함.
- 2011년 8월에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당시 총리)은 2015년까지 유라시아연합(Eurasian union)을 창설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관세동맹 내 에너지교역에 대한 가격 및 관세문제에 대한 합의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음.

- 카자흐스탄 정부는 원유 및 가스 교역시 러시아가 카자흐스탄 수입물량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을 책정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하고 있음. 또 카자흐스탄은 유라시아연합이 창설되면 대 러시아 원유수출에 무관세 혜택을 제공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나 러시아 측이 이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임.

□ 미국 및 EU와도 우호적인 관계 유지

- 카자흐스탄은 에너지, 자원에 대한 미국과 EU의 관심을 활용해 러시아와의 전통적 관계에 국한되지 않는 전방위 외교 및 에너지 자원 수송로의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음.
- 미국은 2001년 카자흐스탄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설정한 이후 엑슨모빌, 셰브론 등 미국계 원유 메이저들의 안정적인 활동을 지원 중임.
- EU는 2007년 이후 '중앙아시아 전략'을 수립해 에너지, 환경, 안보 분야에서 카자흐스탄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중앙아시아 원유, 천연가스의 직접 도입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

□ 대외적 위상 강화에 역점

- 카자흐스탄은 2010년 CIS 국가 중 최초로 유럽안보협력기구(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OSCE) 의장국으로 선출되어 동년 12월 정상회의를 아스타나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했음.
- 2011년 초에는 동계 아시안게임을 알마티와 아스타나에서 개최했으며, 2011년 이슬람회의기구(Organization of the Islamic Conference: OIC)의 의장국을 역임함.
- 2013년 2월 말 카자흐스탄은 UN 안보이사국 5개국과 독일(P5+1)의 이란 핵협상을 주최하는 등 카자흐스탄 정부는 대외적 위상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IV.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태도

□ OECD 회원국의 ECA에 대한 연체비율은 4.2% 수준이나, 외채상환지표 등 개선

- 2012년 9월말 기준 카자흐스탄에 대한 OECD 회원국 ECA의 인수승인 잔액은 단기 3.6억 달러, 중장기 23.6억 달러임. 이 중 4.2%에 해당하는 중장기 1.2억 달러가 연체 중이며 그 중 0.5억 달러는 회수불능 상태임.
- OECD의 정량평가모델(Country Risk Assessment Model: CRAM)등급은 종전 2011년 말 5등급(66.1%)에서 2012년 말 4등급(57.8%)으로 상승함.

2. 국제시장평가

□ OECD 등급은 5등급 유지

- 2009년 10월 OECD 평가전문가회의(CRE)에서는 카자흐스탄의 신용등급을 종전 대비 한 등급 하락한 5등급으로 조정했으며, 이후 2013년 1월 회의 까지 등급이 변동되지 않음.
- 2013년 1월 OECD 회의에서 카자흐스탄의 경제성장 지속, 낮은 공적채무 비율 등을 이유로 4등급으로의 상승이 제안되었으나 대부분의 국가가 카자흐스탄 은행부문의 취약성과 높은 부실채권 비율 등을 이유로 5등급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5등급이 유지됨.

□ 주요 신용평가기관의 국제 신용등급은 상승세

- 카자흐스탄은 2002년 CIS 국가 중 최초로 투자적격등급을 획득한 이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불거진 은행권의 부실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지하고 있음.
- 2009년 하반기부터 금융지표가 개선되면서 주요 신용평가기관은 이를 평가에 반영하여 등급을 상향조정함.

- S&P는 2009년 5월 BBB-/Stable로 등급을 상향한 데 이어 2010년 12월 국채신용등급을 BBB/Stable, 2011년 11월 BBB+/Positive로 연이어 상향 조정하며 카자흐스탄의 경기회복세를 낙관하고 있음.
- Moody's는 2010년 4월 카자흐스탄의 경기회복과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을 반영하여 Baa2/Stable로 등급을 상향조정한 이후 최근까지 유지하고 있음.
- Fitch는 2009년 12월 BBB-/Stable에서 2010년 12월 BBB-/Positive로 등급 전망을 조정하고, 2011년 11월에 양호한 재정상황과 외부충격을 흡수할 충분한 외화자산 보유를 이유로 BBB/Positive로 상향조정하였으며 2012년 11월 BBB+/Stable로 또다시 상향조정함.

<표 3>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수출입은행	C1	(2013. 5)	C1	(2012. 8)
OECD	5등급	(2013. 1)	5등급	(2012. 1)
S&P	BBB+	(2011.11)	BBB	(2010.12)
Moody's	Baa2	(2012. 2)	Baa2	(2011.12)
Fitch	BBB	(2011.11)	BBB-	(2010.12)

□ 주요 ECA의 지원태도

- 미국 EXIM: 조건부 중단기 인수가능
- 영국 ECGD: 최고 부보율 적용
- 독일 Hermes: 단기 인수가능하나 제약조건이 있을 수 있음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양국간 교역규모는 꾸준한 증가세

- 양국의 무역규모는 2010년에 경기회복세에 힘입어 약 9.4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약 124%의 성장률을 나타냈으며, 2011년과 2012년에도

증가세가 계속되어 교역규모는 11.9억달러(수출 8.9억 달러, 수입 3.0억 달러)수준으로 증가함.

- 주요 수출품목: 자동차, 영상기기, 합성수지
- 주요 수입품목: 기타비철금속제품, 합금철선철 및 고철, 알루미늄

□ 대 카자흐스탄 직접투자(2012년 12월 말 누계, 총 투자 기준): 229건, 21.7억 달러

- 우리나라의 대 카자흐스탄 직접투자는 2006년 폭발적 증가 이후 지속 증가하여 2008년에는 연중 8.2억 달러를 기록함. 그러나 글로벌 경기침체로 2009년 1.6억 달러, 2010년 1.3억 달러, 2011년에는 1.1억 달러로 급감함.
- 2012년에는 제조업 부문에서 대규모 계약 및 프로젝트 투자가 증가하여 직접투자 금액이 전년대비 101% 증가한 2.3억 달러를 기록함.
 - 2012년 8월 현대엔지니어링과 현대종합상사가 9억 달러의 카자흐스탄 생산설비 건설사업 수주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삼성물산과 한전이 공동수주한 발하쉬 열병합 발전소 프로젝트도 2012년 9월 착공을 시작함.
- 총 투자기준 2012년 12월 말 누계금액은 21.7억 달러로 우리나라의 21위 해외투자국임. 주요 투자업종은 금융보험업,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및 광업임.

<표 4> 한 · 카자흐스탄 교역 규모

단위: 백만 달러

	2010	2011	2012	주요 품목
수 출	604	757	885	자동차, 영상기기, 합성수지
수 입	334	376	308	기타비철금속제품, 합금철선철 및 고철, 알루미늄
합 계	938	1133	1193	

자료: 한국무역협회.

V. 종합의견

- 카자흐스탄은 풍부한 부존자원을 바탕으로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이 지속되는 등 개발잠재력이 높은 국가로서, 2010년 이후 경제성장률이 5~7% 수준을 시현함. 또 최근 3년간 총수출증가율이 종전에 비해 호전되었고, GDP 대비 총수출 비중도 상승추세를 기록함에 따라 경상수지 흑자기조가 유지됨.
- 단, 에너지부문에 편중된 산업구조와 은행부문의 취약성이 문제로 지적되어 카자흐스탄 정부는 인프라 투자확대 등 산업 다변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추진 중이며 부실은행의 구조조정을 계속하고 있음.
- 2011년 서부지역 노동자 파업으로 인한 소요사태는 소강상태로 정부는 적절한 강경책과 회유책을 구사하며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 중임. 계속된 경제성장세로 실업율이 낮아지고 있어 사회불안요인이 축소된 것으로 분석되나 1994년 이후 장기집권 중인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후계문제가 불확실함. 카자흐스탄은 러시아 위주의 국제관계에서 나아가 중국, 미국 및 EU와도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대외 위상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신용평가기관은 카자흐스탄의 긍정적인 경제 성장 전망을 반영하여 정부채권신용등급을 BBB+/Baa2 수준으로 상향조정했고, OECD 정량평가모델(CRAM) 등급도 종전의 5등급에서 4등급으로 개선됨.

조사역 유나영 (☎02-3779-5708)
E-mail: smilenayoung@koreaexim.go.kr